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공개
강좌

10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대담: 김지철 목사]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

사회변혁과 한국교회의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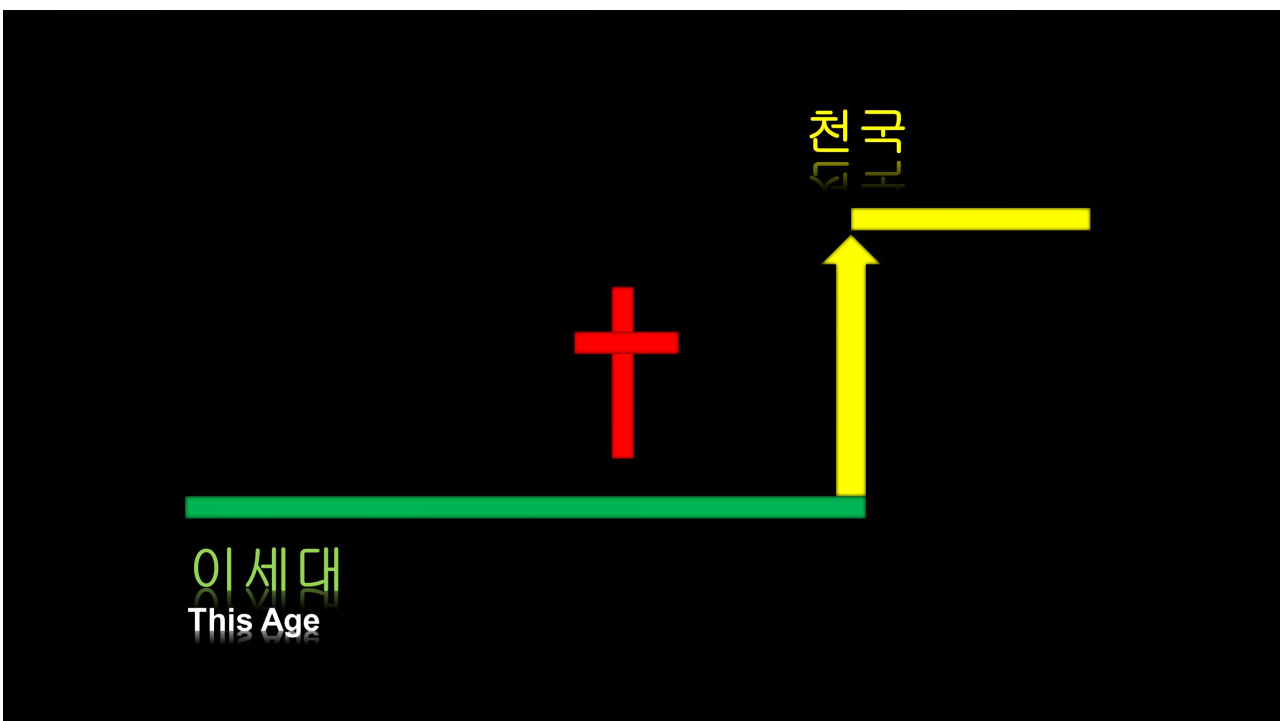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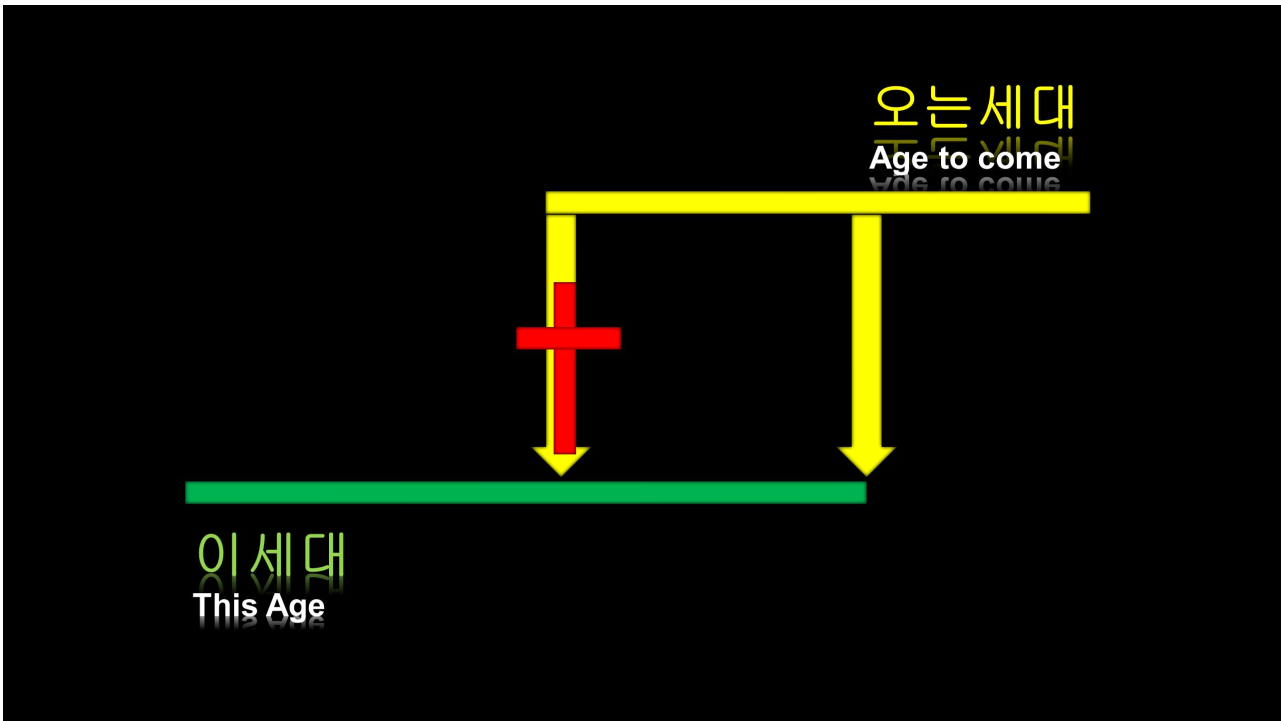


성석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변혁과 한국교회의 갱신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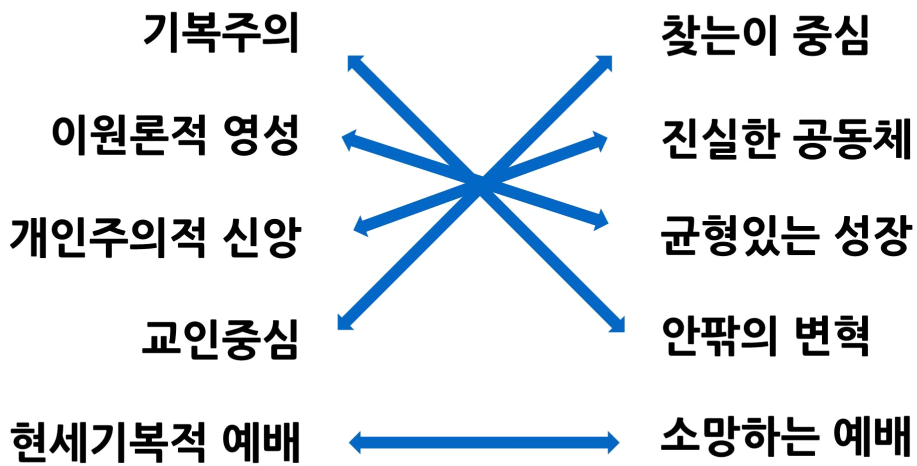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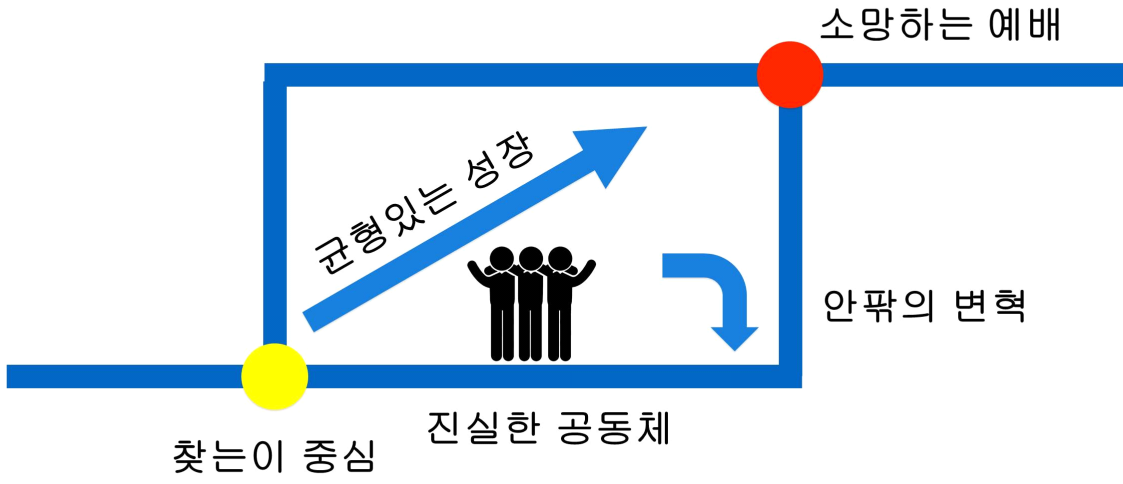
현재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DNA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 신앙
교인중심
현세기복적 예배



세속적 교회의 DNA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사회변혁과 한국교회의 갱신

성석환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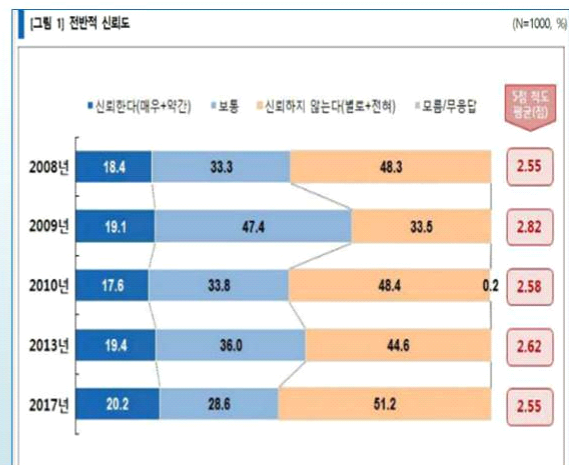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한국교회 public theology & Korean society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The Religious Discourse & public role of
Church in the post-secular society

성석환
(장신대/기독교와문화, 도시공동체연구소장)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개인의 문제인가?
- 한국교회의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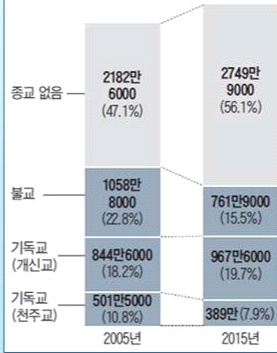
한국의 종교분포

- 지속적인 탈종교화
- 젊은 층에서 반기독교 정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무종교인이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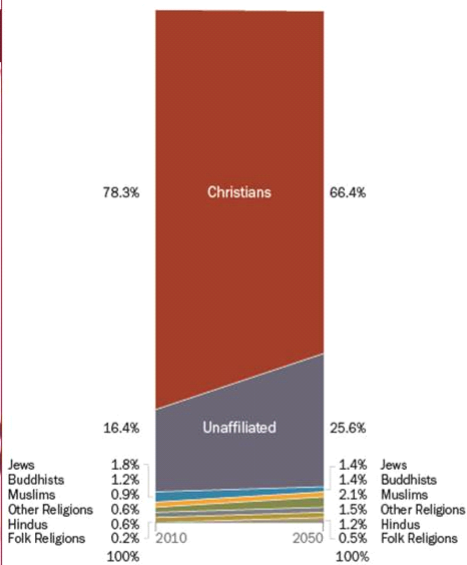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만는 종교가 있다면) 어느 종교를 믿으십니까? (%)

	사례수 (명)	한국의 종교 인구 분포					비종교인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1984년	1,946	19	17	6	3	56	
1989년	1,990	21	19	7	2	51	
1997년	1,613	18	20	7	1	53	
2004년	1,500	24	21	7	1	47	
2014년	1,500	22	21	7	0	50	
성별							
남성	743	20	18	5	0	56	
여성	757	24	24	8	0	43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고, 최대 종교는 개신교 단위·명, 괄호 안은 비율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2010-2050



Figures may not add to 100% due to rounding.
Source: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PEW RESEARCH CENTER

세계인구 증가로 인해 기독교인구도 늘어나겠지만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즉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Projected Cumulative Change Due to Religious Switching, 201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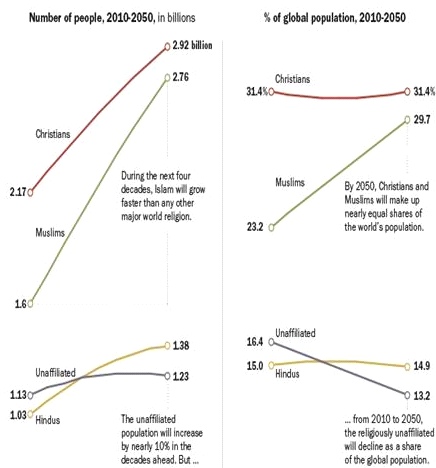
Projected Cumulative Change Due to Religious Switching, 2010-2050

	Switching in	Switching out	Net change
Unaffiliated	97,080,000	35,590,000	+61,490,000
Muslims	12,620,000	9,400,000	+3,220,000
Folk Religions	5,460,000	2,850,000	+2,610,000
Other Religions	3,040,000	1,160,000	+1,880,000
Hindus	260,000	250,000	+10,000
Jews	320,000	630,000	-310,000
Buddhists	3,370,000	6,210,000	-2,850,000
Christians	40,060,000	106,110,000	-66,050,000

Source: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PEW RESEARCH CENTER

Projected Change in Global Pop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Buddhists, all of the major religious group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number by 2050. But some will not keep pace with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as a result, are expected to make up a smaller percentage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50 than they did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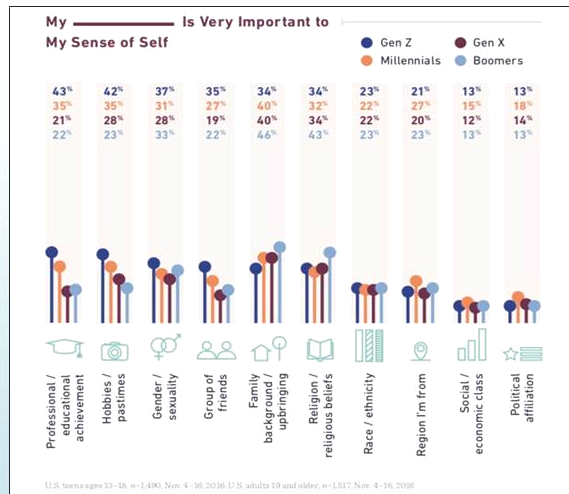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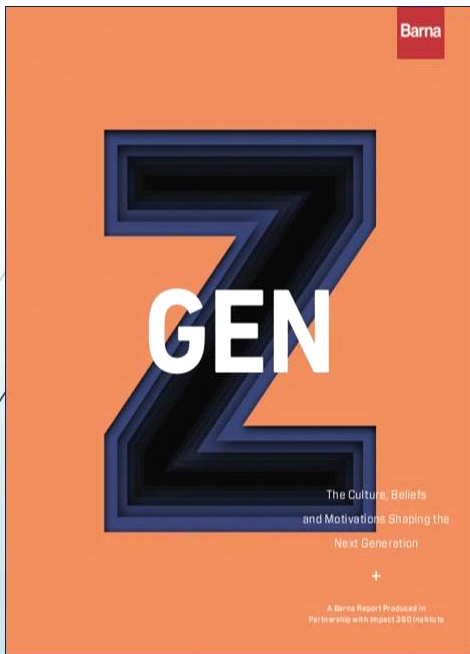
Age Distribution of Religious Groups, 2010

	% under 15	% ages 15 to 59	% ages 60 and older
Muslims	34%	60%	7
Hindus	30	62	8
Christians	27	60	14
Folk Religions	22	67	11
Other Religions	21	65	14
Jews	21	59	20
Buddhists	20	65	15
Unaffiliated	19	68	13
World	27	62	11

Figures may not add to 100% due to rounding.
Source: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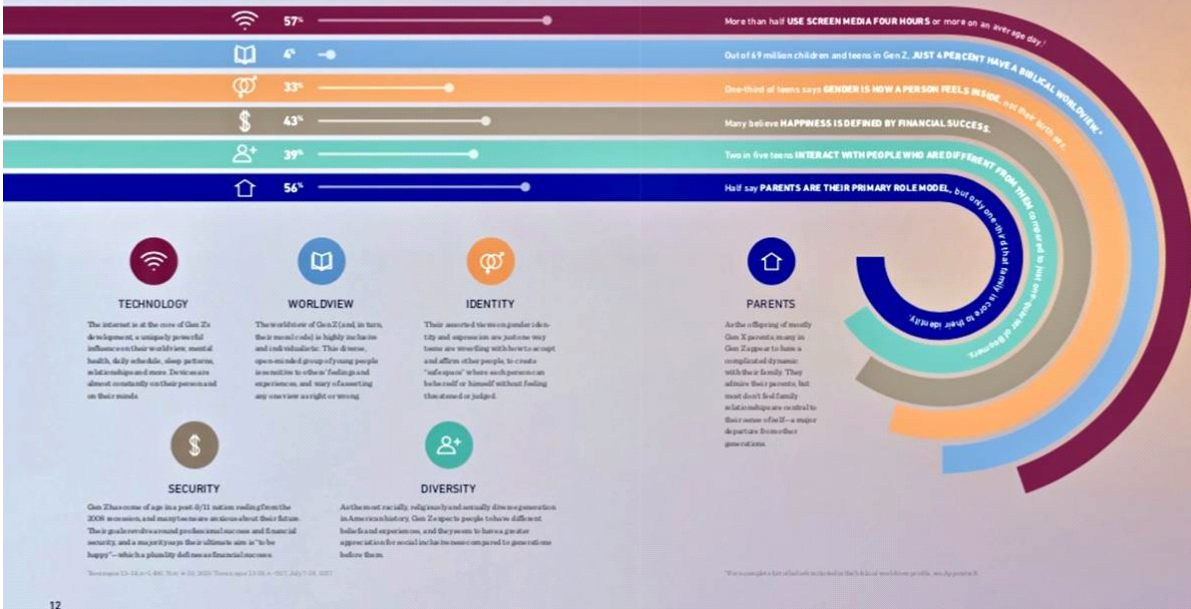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지금 교회에서
1318
Z Generation이
사라지고 있다.



Making Gen Z

The Forces Forming a Generation



다음세대?

- ‘꼰대’에 대한 거부감
- ‘소확행’이라도 내 방식으로
- 우리를 인정해 달라!
- 새로운 이념지형, 종교지형

2025년 이후의 미래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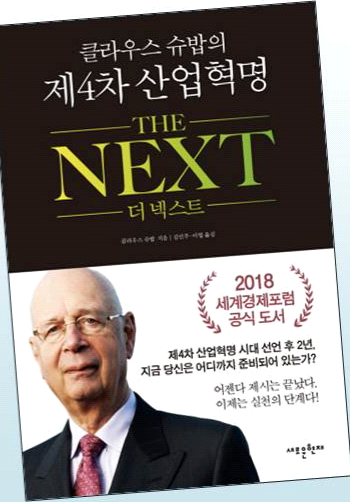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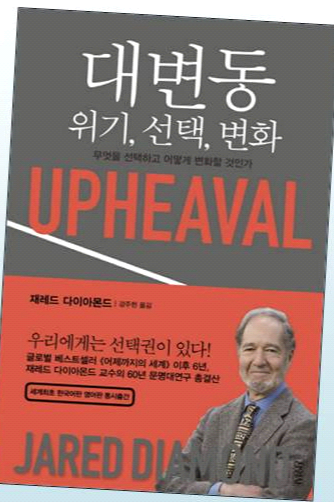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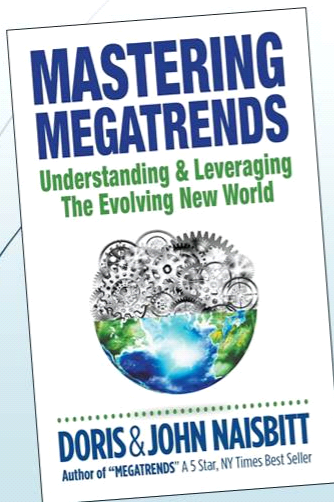
김혜원 지음

“애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

whale books



전망들과 대안들



변하는 세상 속의 교회

	칼케돈	포스트모던
1	하나의 one	다양한 diverse
2	거룩한 holy	문화적 cultural
3	보편적 catholic	상황적 contextual
4	사도적 apostolic	평신도 congrigational
5	역사와 전통	문화와 현장

신앙과 개인, 그리고 교회

- 신앙은 개인적인(private) 것인가?
- '정교(State & Church) 분리'의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 사적 교회와 공적(public) 교회의 차이
-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공공성(publicity)

1987-2017, 그리고
그후 2년 한국사회의 변동



1987 이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문화사회 vs. 문화산업

1998 IMF 외환위기

대중문화와 한국교회: 문화전쟁

보수에서 근본주의로

복음주의의 타락, 에큐의 실패

신자유주의와 신빈곤 사회

- ▶ 신자유주의 경제지구화
- ▶ 노동력과 구매력
- ▶ 2008년 세계금융위기
- ▶ 신빈곤 사회와 빈부격차
- ▶ 파괴되는 공동체



신빈곤 사회

- 신빈곤 사회란?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2004)
- 소비의 능력으로 노동력 판단: 끊임없는 소비로 경제 유지
- 가난은 개인의 능력 부재의 탓
- 과거에는 빈곤층을 노동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생산력 증대라는 경제적 의미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과 생산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상품 시장의 유혹과 자극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열등하고 무능한 비소비자인 가난한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유기된다.

한국사회와 도시, 마을, 공동체 담론

- ▶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 공동체
- ▶ 경쟁에서 공존의 마을공동체로
- ▶ 한국교회의 사회적 고립 가속
- ▶ 새로운 공동체 담론에서 소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 한국교회의 부재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동북아 정세 근본적 변화
- ▶ 한국교회는 준비되어 있나?



4차 산업혁명과 인간

- ▶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질문들
- ▶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들
- ▶ 교회의 역할?
- ▶ 종교는 사라질 수도 있으나, 종교적 질문은 남는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사회의 공공성 상실
 청년, 교회학교가 사라진다.
 한국교회는 중산층의 종교다.
 한국교회는 공론장에서 이미 타자다.

왜 공공신학인가?

왜 공공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공공신학은 어떻게 다른가?

공공신학의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한국적 공공신학에 대하여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은 ‘기독교사회윤리나 ‘정치신학이 대응해왔던 질문들에 대해 시민사회의 ‘공공(publics)’을 고려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선(the common good)’을 지향하는 신학적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고 그를 실천하고자 한다.

신학공동체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개입하되, 교회의 주체적 역할을 주장하기보다는 ‘신학의 자리’를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의 테이블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내부의 개혁과제에 몰입하느라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도가 부족했고,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신학에 의존하여 기존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공신학을 위한 한국교회의 논의가 초보적인 이유도 현장에서의 경험부재에 기인하는 것

서구와 우리의 공공신학

■ 서구의 시민사회 공간이 주로 부르주아 계급의 사유재산과 정치적 자유를 위해 확장되어 온 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제국주의나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공공성이나 정의와 관련된 의제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신학자들과 방법론

- William Storrar-GNPT/IJPT
- Duncan Forrester-Edinburgh / Christian Social Ethics
- Robert Bellar-Civil Religion
- Martin Marty-“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Journal of Religion*, 1974)”
- Max L. Stackhouse-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치와 윤리의 통찰력을 공적 영역에 개입시키는 교회의 노력이 ‘공공신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ebastian Kim- ‘공공신학의 당위를 신학의 공적 특성과 복음의 공적 본성에 두고 작업하는 연구들과 기존의 상황신학이나 정치신학의 토대들 위에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공신학이 기존 신학과 구별되려면 그 신학적 방법론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필요

공공신학적 방법론



분석 analysis/contextual



해석 interpretation/theological



대안
constructive/interdisciplinary

▶ Linell E. Cady-Richard Niebuhr & Public Theology

▶ 공공신학이 스택하우스나 트레이시(Tracy)처럼 공공 영역의 의미 체계에 규범적 역할이 되도록 하는 방식, 즉 신학의 공공성 규명 자체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공공신학의 성찰이 기독교 내부의 사적이고(private) 편협한(parochial)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또 벨라(Bellah)나 마티(Marty)와 같이 시민사회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기독교적 정체성에 근거한 메시지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

▶ John de Gruchy-Bonhoeffer & Public Theology

▶ E. Harold Breitenberg, Jr.-Constructive method. 공공신학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적이며, 그것은 신앙공동체 안팎 모두를 향한 담론(discourse)의 과정

▶ Confessional Theology vs. Public Theology- '고백신학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비기독교적 자료나 기독교 전통에 속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통찰에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공공신학자들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 제도, 상호작용을 다루며, 종교적 신념과 실천 사이에서 공적인 사안을 평가하고 해석한다는 점이 전통적인 신학과 다르다. 끝으로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가이드나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신학의 자리: 공공과 후기 세속사회

김창환과 케이트 데이는 '공공신학의' 담론적 수행을 위해 우선 '공공(publi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을 단일체 혹은 부정형으로 인식하면 기독교 내부의 논의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신학은 '공공 영역의 본성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참여해야 할 '공공들(public)'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학제간, 학문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좌우의 경계와 함께 위아래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적인 논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신학이 '사회에 대하여(to society)'에 말해왔다면, 이제 '사회 안에서(in society)' 대화를 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주장한다.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2013)

'공공신학을 기독교사회윤리나 정치신학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공공(public)'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전통적인 신학적 범주 안에서 '공공은 신학 외부의 영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공공을 신학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신학의 '장(field)'으로 여긴다. 그래서 공론장의 문법과 담론형식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Post Secular Society

▶ Jürgen Habermas & Joseph Aloisius Ratzinger – 종교적 성찰(insight)과 세속적 의식(consciousness)이 상호보완적인 '배움의 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해 두 영역의 한계를 극복”

--- *Dialectics of Secularization*(2005)

▶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는 흐름에 대해 종교의 공적 역할을 정당하게 인식해 줄 것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오늘의 '후기세속사회'에서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공신학에게 주어져 있다. 종교의 영역을 세속적 영역과 대립적으로 구성하는 구도를 극복하고, '후기세속사회'에서의 '공공신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일은, 종교가 사회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현하고 증명하는 일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종교 지형

서구의 근대적 공론장과 한국의 공론장, 차이는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공공성' / 독재시대의 '국가주도형 공공성'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주도적 공공성에 대한 한국교회의 복무

탈정치, 탈세속적 기독교 영성과 교회성장

제도권 종교의 세속화=한국인의 종교성 약화?

변화된 종교지형에 따른 새로운 공적 종교 필요

With the Public theology
for the Common Good
toward the Missional Church

시민사회에서 성육신적 복음의 증언

다시
세상 속으로

새로운 가능성 발견,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회 중심의 새로운
선교

교회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향하는
새로운 방향성

변혁에서 공존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선교적 교회



한국교회에게 부여된 새로운 선교적 명령은
성육신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사회적 연대로 조직하는 것이다.

선교적 상황으로서의 시민사회

- ▶ 북미/유럽의 새로운 교회 운동
- ▶ 선교적 교회/선교형 교회는 문화적이며 교회개혁 운동
- ▶ 서구 시민사회의 자유, 개인주의, 다원성 기반
- ▶ 한국적 선교적 교회 운동
- ▶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 ▶ 1987-2017의 사회적 요구
- ▶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성, 정의, 민주주의 등을 기반



~~me.~~
~~you.~~
us.
interact.

THE COMMON GOOD × GREENBELT 2017

사회적 영성
공동선
마을목회
문화목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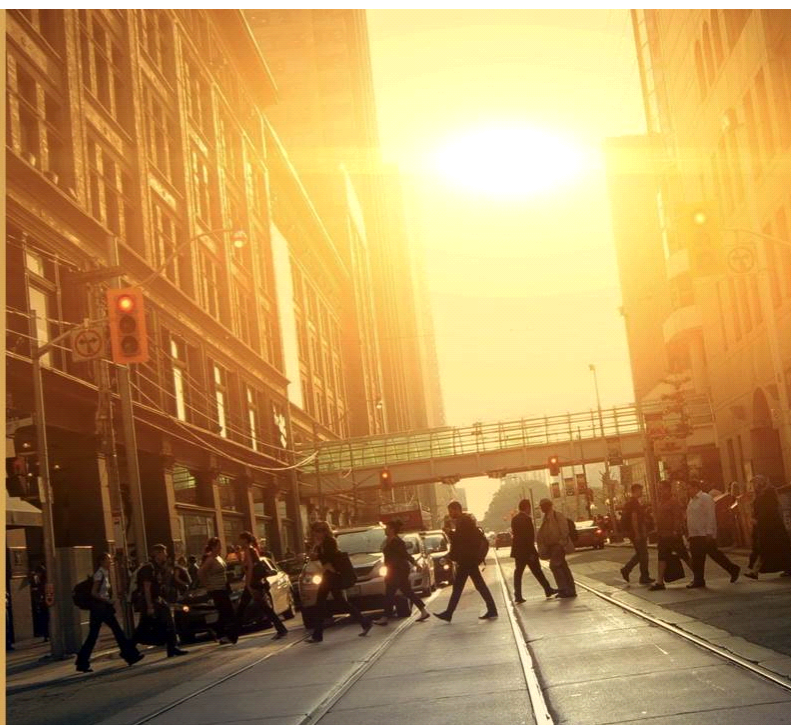


하나님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번역하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Living
in the city of Peace & Justice



Church
in the post secular
society
Church
in the post
Christendom
&
Church
for the Common
Good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